

김용민브리핑

2017년 1월 13·14일 금·토요일 합본

발행처 일곱시간행블그네

홈페이지 <http://www.poddbang.com/ch/9938>
 전자우편 kimyongminpd@gmail.com
 텔레그램 <https://telegram.me/kimyongmin>

전통방식 속성! 최고의 맛은 알싸한홍어	1599-6456, 010-9384-7970 alssahan.co.kr
대한민국 1등 품질 홍삼은 정성농장홍삼	041-754-0884, 010-9754-6972 jeongseongfarm.com
시대와 삶을 함께 읽는다! 한국현대생활사	창작과비평사 031-955-3333 goo.gl/YDYJDW
바로 잡힌 골반, 건강한 인생 바디로직	070-8220-5796 store.bodylogic.co.kr
무료 웹 애니메이션 채널 좀바라TV	032-258-6261 zombara.com
최고급 러시아 냉동대게 대게직거래장터	1644-9047 cafe.naver.com/snowcrab09
안티요요! 다이어트 쇼핑몰은 비타샵	031-783-6007 vitashop.co.kr
예쁜 구멍이 뚫! 장 청소는 미궁장사랑	070-4115-0365, 010-2892-0365 jangsarang.com
아이에서 어른까지 안심 사용하는 수아비스화장품	1688-9113, 031-717-1613 www.suavisslab.com
한 번 가면 계속 가게되는 풍무양고기	031-902-9292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770 삼희포시즌프라자 2층
세계 최고 브랜드에 10년 품질보증 매트리스엠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25번길 28 www.mattressm.com
진보가 만든 상품판촉물은 내피알	032-519-4800 nepr.co.kr
일반 짜장 파스타 맛에 취했다 킹닭갈비	070-4217-7179 goo.gl/Xyfr9D
김용민 브리핑 대리운전 브리핑대리운전	1522-9687 박근혜 구속시 1회 무료이용
정통 포루투갈 에그타르트! 에그타르트 타르트팜 컨텍스트점	facebook.com/tartfarm13 고양 일산서구 대화동 2602 레이킨스몰 154호
김치맛 말고는 자랑할 게 없는 이담채김치	1544-4586 edamche.com
김영란법 걱정 없는 최고의 선물! 전창걸의새싹땅콩차	070-8635-1288 전창걸.com
축하 위로 고백 응원에는 좋은사람과플라워	1566-0263 flowergood.co.kr
월1만원 황제보령커피 그리고 월7천원온전자보험카페	02-849-9730 cafe.daum.net/7000kim
내 아이 먹고 먹을 수 있는 와우전복	010-2443-0818 wowabalone.modoo.at
한우 사골에 가미술에 필할 끓인 연지연곰탕	0-10-7252-1114, 031-989-9968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6-5

노후핵발전소 폐쇄
신규핵발전소 확대중단!

잘가라! 핵발전소

아세요?

세계 최대 규모 핵발전소 밀집지역 있는 나라가
 원자력안전기구가 동시 및 중대사고 대비 없는 나라가
 지진 위험지대지만 내진설계는 20~30배 낮게 적용한 나라가
 사고 나지 않았음에도 갑상선암, 핵폐기물 등의 문제 발생을 야기하는 나라가
 이 많은 핵발전소를 안 만들어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걸요!
 원자력으로 불리지만 본질은 핵인
핵발전소를 반대합니다



무자격자 반기문

김용민 / 김용민브리핑 대표 프로듀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대통령 출마 자격과 관련해 자격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현재 법은 5년 이상의 기간을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 출마 권한이 부여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주라 단어는 주소지를 국내에 뒀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공무로 인한 외국 파견도 국내 거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일각에서는 5년 이상 거주는 그 이전에도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포괄한다고 지적합니다. 반기문 씨도 이 입장에 기대 있는 것이지요. 반기문 씨의 발언은 이렇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분명히 자격이 된다, 이렇게 유권을 해석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

이에 대해 이데일리와 인터뷰 한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임호영 변호사는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라고 법조문에 적혀 있다, ‘거주하고 있는’은 현재진행형으로서 ‘계속하여 거주한’의 의미라고 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따라서 반기문 씨가 출마하려면 지금부터 5년 이상은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리 판단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문제와는 별개로 유엔의 1946년의 결의안 내용을 보면 '유엔 사무총장은 퇴임 직후에 어떤 정부의 자리도 삼가는데 바람직하다'라고 적었습니다. 반기문 씨 측은 권고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무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북한은 자기에 대한 유엔의 각종 결의를 무시해도 됩니다. 온갖 시비와 논란을 뚫고 대통령을 기어코 하겠다는 반기문 씨, 동생과 조카의 기소가 또 다른 장애물로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무나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교훈, 다가올 대통령 선거에서 확실하게 보여줄 몫이 대한민국 주권자인 유권자에게 있습니다.

오 | 늘 | 의 | 김 | 용 | 민 | 브 | 리 | 핑

■ 1월 14일(토) 1부 | '구속 임박' 이재용, 박근혜 운명까지 짊어지다

[오프닝] "출마 자격 논란" 돌파하겠다는 반기문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삼성, 박근혜 독대 전 김중에게 "정유라 지원 언제든 준비됐다"

-특검, 이재용 사법처리 '가닥'... 뇌물위증 '22시간 진실 게임'

-특검 "이재용, 삼성합병으로 수조원 이득" 혐의 입증 자신

-압박 의한 뇌물공여도 처벌... "삼성, 유무죄 논할 단계 지난 듯"

-수구신문지 조선일보 또 재벌 편들기... "총수들 역차별 받는다"

[최동석 칼럼] 최동석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장

-전근대적인 국가운영모델에서 벗어나려면 :약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김프로이드] 김프로 전 SBS기자, 영화평론가

-이재용 압박 특검수사 총정리...누구도 그들을 못 막는다

■ 1월 14일(토) 2부 | [관훈나이트클럽] "김용민 해금"...혁명은?

-TV조선 사주 '방상훈 혁명동지'의 출현?

-이재용 구속될 운명...한국 경제에 청신호

[출연] 민동기 미디어평론가, 정상근 미디어오늘 혁명가,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

이재용 게이트

경향신문 삼성 “정유라 지원 언제든 준비”

2015년 7월, 대통령 박근혜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를 했지? 그런데 독대 한달전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김종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만나 정유라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는 김종 전 차관의 진술을 특검이 확보했다. 김종 전 차관은 “삼성은 그해 5월 정유라가 제주도에서 출산한 사실까지 파악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정유라의 ‘몸 상태가 좋아지면 바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고 한다.

경향신문 특검, 이재용 사법처리 ‘가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 공여와 위증 혐의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형사처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또한 특검은 앞서 조사한 삼성그룹 2인자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 3명의 진술과 이재용 부회장 진술이 일부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 일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소환은 없다고 못 박았지만 이번 주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확정하고 밝혔다.

노컷뉴스 “이재용, 삼성합병으로 수조원 이득”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적법하게 한 것이고 정부에 신세진 것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유라에 대해 수십억 원을 지원한 데 대해서도 “대통령 박근혜의 강한 압력에 못 이겨 지원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이런 이 부회장의 진술에 대해 특검팀은 “큰 의미 없는 해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삼성이 최순실 일가를 지원한 이면에는 ‘대가성’이 분명히 있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팀 고위 관계자는 “삼성이 합병으로 최대 3조 원의 이익을 봤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세계일보 이재용, 피해자 아닌 ‘뇌물공여자’

이어서 세계일보 보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에게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특검은 삼성이 박근혜의 적극적 지원에 힘입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성사시켰고 이로써 이재용 부회장의 후계구도도 탄탄해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삼성이 피해자’라는 이재용 부회장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렵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압박을 느껴 뇌물을 건넸다고 해도 뇌물공여자 역시 처벌을 받는다”고 밝혔다.

한겨레 이재용, 합병 전 ‘정유라’ 알았다

이제부터는 삼성 게이트 소식이다. 대통령 박근혜가 2015년 초 정유라를 록 찍어 지원을 지시한 사실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확인했다. 이 지시를 받은 김종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과 주기적으로 연락하며 정유라에 대한 지원을 논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박근혜가 2014년 9월15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첫 독대 당시 ‘정유라’ 지원을 언급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도 최소한 삼성 합병 전에 정유라의 존재를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뇌물공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오늘 새벽에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인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2시간여의 특별수사팀 조사를 받은 후 귀가했다.

한국일보 삼성 고위급 회의에서 이재용 덜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 핵심 고위관계자들이 최순실에 대해 ‘대가’ 제공을 모의한 단서를 확보했다.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과 삼성그룹의 2인자인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 등이 삼성 임직원 전용의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회의를 소집한 것이다. 검찰은 이들의 회의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한 만큼 최순실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는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봤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중심의 지배구조 공고화를 위해서다. 이에 따라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깊숙이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범죄자 박근혜

경향신문 박근혜, ‘뇌물죄’ 아니면 ‘공갈죄’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를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삼성이 최순실에게 지원한 수백억원대 자금이 최순실과 대통령 박근혜가 공모해 받은 ‘뇌물’임을 입증해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삼성 측은 ‘정유라를 지원하라’는 박근혜의 강한 압박에 못 이겨 지원할 수밖에 없던 피해자이고 대가성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에 따라 특검의 수사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이 물적 증거와 관계자들 진술로 지금의 대가성을 입증한다면 그러니까 정유라 지원과 삼성합병 허용을 맞 바꾼 것을 확인한다면 박근혜의 범죄는 ‘뇌물’이 된다. 물론 입증하지 못해도 박근혜는 ‘공갈’ 죄가 성립된다. 뇌물의 죄가 더 크지?

세계일보 朴, ‘뇌물수수’ 피의자로 곧 입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조만간 대통령 박근혜를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정식 입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삼성이 강요에 못 이겨 돈을 낸 것으로 판단해 박근혜를 직권 남용 및 강요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삼성이 대가를 바라며 뇌물을 건넸다는 입장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뇌물죄로 바꿔 공소장을 변경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박근혜의 뇌물수수죄 입건이 시간문제임을 내비쳤다.

경향신문 박근혜-롯데, ‘면세점 거래’ 정황

최순실과 장시호는 평창올림픽 이권사업을 노렸었지? 롯데가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파트너가 되어 주는 것을 대가로 신규 면세점 특허권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해 3월14일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대통령 박근혜가 독대를 가졌고 이틀뒤 롯데는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파트너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이 무렵 기획재정부는 ‘면세점 특허 수 확대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하고 한 달뒤 관세청은 서울에 면세점 4곳을 추가 선정하기로 발표했다.

지난해 4월은 롯데월드타워가 면세점 갱신 심사에서 탈락하고 반년도 지나지 않은 시기라서 특혜 논란이 불가피한 시점이다.

朝鮮日報 “朴, 청와대서 증거인멸 회의”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서 검찰은 안종범 전 수석이 지난해 10월 작성한 청와대 회의 메모를 공개했다. 이 메모에는 ‘청와대는 재단 모금과 인사에 개입하지 않았고,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주도로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후원한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당시는 TV조선과 한겨레의 보도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의혹이 급속히 번지던 때였다. 검찰은 “이 회의에는 대통령 박근혜도 참석했다”며 “청와대가 증거를 없애려 대책 회의를 열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증거”라고 했다. 검찰 조사 결과 박근혜는 재단 사무실 위치까지 강남으로 정하라고 지시했고, 모금 및 임원 선정에도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 특검, 김기춘·조윤선 다음주 소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와 연루된 전직 청와대 행정관의 주거지 등 7곳을 극비리에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을 당한 전직 청와대 행정관은 블랙리스트가 최초로 작성된 2014년 5월 당시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관련 실무를 담당한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특검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다음주에 소환하기로 했다. 특검이 블랙리스트 의혹의 정점에 있는 두 사람의 소환에 앞서 이들을 옥죄 수 있는 결정적 물증을 확보하려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일보 “김영재 때문에 3대가 세무조사”

김영재 의원은 최순실의 단골 성형외과이자 대통령 박근혜의 비선의료 의혹의 핵심이지? 그런데 청와대가 김영재의원에게 특혜를 제공하려다 민간건설업체가 제동을 걸자 해당 업체 대표를 상대로 보복에 나섰다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대원어드바이저리 이현주 대표를 통해 이러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했다.

이현주 대표에 따르면 “2014년 청와대 측의 비공식 의뢰로 김영재 원장의 중동 진출을 검토한 뒤 ‘불가능’의 견을 냈다”고 한다. 그러자 이듬해부터 자신과 부친, 조부 3대에 걸쳐 보복성 세무조사 등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특검팀은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선 배후가 사실상 청와대라고 결론 내리고 수사하고 있다.

중앙일보 “세월호, 노무현 때는 있을 수 없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재판부는 류희인 증인에게 청와대의 위기관리 시스템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류희인 씨는 군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위기관리비서관을 지냈고 최근까지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이었다. 이진성 헌법재판관이 참사가 발생하고 4시간이 넘도록 청와대가 전원 구조로 오인할 수 있냐고 질문하자 류희인씨는 “있을수 없는 일”이라며 일축했다. 류희인씨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세월호 참사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청와대 위기관리 상황실에선 10개의 상황판을 통해 운항 중인 선박도 화면에 표시된다”고 말했다. 또한 청와대 상황실에도 부속실이나 수행비서가 대통령께 유선 보고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차 측근들의 심판 지연, 오히려 독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박근혜의 측근들이 보이고 있는 진술거부와 불출석이 오히려 박근혜에게 독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과 윤전주 행정관은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즉답을 피하고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증인들의 이런 태도는 재판부가 증인 진술이 거짓이라고 보고, 이들의 검찰 조서 내용에 더 무게를 둘 수 있기 때문에 박근혜에게 불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증인으로 채택된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은 잠적한 상태인데 재판부는 이들의 검찰 수사기록 자체를 증거로 삼아 이것만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미르재단은 ‘박근혜 퇴임’ 대비용?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재단을 이용해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리모델링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서 ‘대통령 주요지시사항 이행 상황표’ 내용을 공개했다. 안종범 전 수석의 보좌관인 김모씨가 작성한 상황표에는 박근혜가 지난해 3월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에게 “박정희기념관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미르재단과 논의해 강구”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해 9월 <한겨레>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보도를 하면서 이 계획은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박근혜가 미르재단에 깊숙이 개입한 것은 ‘퇴임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도 짙어지고 있다.

민족지의 재벌사랑

朝鮮日報 朴은 버려도 재벌은 포기 못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삼성이 언론을 통해 대규모 여론전을 기획한다는 제보를 폭로했는지? 조선일보는 특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재벌에 대한 강력한 수사의지를 보이자 삼성과 재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보도를 실었다. 일부 소개한다.

-삼성 고위 관계자는 "대기업 총수의 구속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10대 그룹 관계자는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데도 '재벌 봐줬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역차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경제주간지 닛케이비즈니스는 "최근 일련의 사태가 글로벌 경쟁에서 이겨온 삼성에 역풍이 되고 경쟁사에는 순풍이 된다"고 지적했다.

반기문 귀국

세계일보 潘 ‘민생행보’에 쫓겨난 노숙인들

어제 귀국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민생행보에 나섰다. 반기문 전 총장이 서울역을 방문한 것인데 대합실에 머물던 노숙인들은 외부로 쫓겨난 것으로 드러났다. 반기문 전 총장이 서울역에 도착하기 2시간 전부터 역대 보안요원들은 노숙인들을 감추기 급급했다. 비교적 따뜻한 대합실에서 머물던 이들은 치안 유지를 이유로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진 광장으로 내몰렸다. 이날 밤 서울 기온은 영하 4도를 기록했다.

계엄군의 만행

중앙일보 5.18 시민에게 헬기에서 발포했다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출동한 계엄군이 헬기를 동원해 공중에서 민간 빌딩에 무차별 발포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 산하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보고서를 광주광역시에 통보한 것인데, 계엄군의 헬기 사격 여부를 규명하는 최초의 정부 기록이다. 그동안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주장이 줄곧 제기됐지만 군은 부인해왔다. 이번 국과수 감정서는 5·18 당시 계엄군의 집단 살상 시도가 확인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바른정당의 정체성

한겨레 '18세 투표' 반대하는 새누리·바른정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촛불 개혁입법' 과제로 추진 중인 '만 18살 투표법'의 1월 국회 통과가 힘들어졌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이 법안에 반대하면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아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분당을 겪고 원내 '3야' 체제가 되면서 "개혁입법의 동력이 커졌다"는 평이 많았는지?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협상의 방정식만 더 복잡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랑의교회 특혜 논란

한겨레 법원, 사랑의교회 도로 점용 '취소'

법원이 강남 대형교회인 사랑의교회의 공공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2010년 서초구는 서초역 주변에 신축 중인 사랑의교회에 공공도로를 사용하도록 도로점용과 건축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공공도로의 지하 부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준 이 허가를 둘러싸고 특혜 논란이 일었다. 2012년 서울시도 주민 감사를 통해 "도로점용 허가가 부당하다"고 통보했다.

판결이 최종확정되면 교회는 개신교 최대 액수인 2900억원을 들여 지은 건물을 일부 허물거나 지자체에 기부해야 할 수도 있다.

오늘의 칼럼

경향신문 "떠나는 대통령의 뒷모습"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은 떠나는 대통령의 뒷모습이라는 제목의 14일자 한겨레 정남구 논설위원의 글이다.

“문제를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찾는 사람들이 있다. ‘제왕적 대통령’이란 표현이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한 측면만을 본 것 같다. 강력한 힘을 가진 대통령을 바라는 것은 바로 우리 국민이다. 그래야 꼬인 매듭을 단칼에 끊어버리듯, 문제를 깔끔히 해결해줄 테니까, 라고 생각한다. 주한미국대사관의 문정관 그레고리 헨더슨이 1951년 우리나라 곳곳을 여행한 뒤 쓴 여행기에 “노천에서 밤을 지새우는 거지조차도 정치 문제를 명쾌하고 열정적으로 논할 정도였다”고 썼다.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중앙권력에 늘 관심을 뒤야 하는 이 나라 정치 특징이 크게 바뀐 것 같지 않다. 개헌 방향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제를 지지하는 쪽이 훨씬 많다. 그러니 차기 대통령도 현행 헌법에 따라 뽑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어찌하면 실패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까? 도덕적이고 역량이 뛰어난 사람? 나는 정치, 정치인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진지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본다.

정치는 다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상호 존중은 기본적인 미덕이요, 타협은 불가결하다. 열혈 지지자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경쟁자나 그 지지자들을 무차별 공격하는 것을 볼 때 나는 섬뜩함을 느낀다. 시퍼렇게 날이 선 말들이 튀기는 불꽃 앞에서 진지함은 설 자리가 좁다. 다면적인 후보 검증은 애시당초 어렵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잘해보라, 두고 보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면, 대통령 지지도 그래프의 모양새는 다음에도 달라지기 어려울 것이다.”

미디어협동조합에서 프로듀서를 찾습니다

(상세 안내) http://coop.kukmin.tv/bbs/board.php?bo_table=m56&wr_id=31